

학교재 신관에서는 김호득 작가의 신작 28점이 선보인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올 굵고 투박한 광목에 스미고 번지고 튀어 오르는 먹빛으로 우리 한국화의 다채롭고 풍요한 확장을 보여준다. 또한 그간의 전시 주제를 한데 모아 '글자' '문득' '급류' '폭포' 연작으로 나누어 전시함으로써 작가 김호득의 작품 흐름을 조망할 수 있다.

I. <글자> 연작

'글자' 연작은 소재도 재미있지만, 그 조형 형식이 매우 인상적인 작품이다. 글자를 이용해 조형을 할 경우 대체로 글자의 시각적 구성과 디자인을 토대로 패턴을 만들거나 추상적인 미를 추구하는 게 일반적이는데, 김호득 작가의 경우 매우 낭만적인 풍경화처럼 형상화해 송고미가 느껴지는 독특한 작품으로 완성했다. 원손잡이인 작가 김호득의 '글자' 연작은 단순함과 설명하기 어려운 미묘함이 함께 어우러져 볼수록 감칠맛이 나며, 예사롭지 않은 글자의 표정에 자꾸만 눈길이 가는 작품이다.

II. <문득> 연작

'문득' 연작은 '글자' 연작의 연장선상에 있는 작품이다. '문득'이라는 타이틀 아래 동그런 바위 같은 게 주제가 된 작품은 저 선사시대로 우리를 이끄는 묘한 환기력이 있다. 도판10 작품<문득-사이>에서 그 바위는 너와 나, 자연과 인간 같은 대립하는 두 존재를 생각하게 한다. 너와 나든 자연과 인간이든 그림 속 존재는 스스로를 증명하고자 하는 강렬한 에너지의 소산물임이 틀림없다.

III. <급류> 연작

'급류' 연작은 근래 폭우를 만난 뒤 팔팔 흘러가는 황톳물에서 강한 인상을 받아 그리게 된 작품이다. 이전에도 그는 빠르게 흐르는 계곡물을 그렸다. 하지만 이번 그림들은 그때의 그림과 많이 다른데 특히 형식이 크게 달라졌다. 과거에 계곡을 그릴 때는 물이 주재였음에도 물을 직접 그리지 않고 돌과 주변을 재빠른 붓놀림으로 표현해 물이 느껴지도록 했다. 붓이 속도감 있게 내달리고 먹물이 튀면서 물의 운동이 자연스럽게 연상되었다. 하지만 맑은 물이 아니라 황톳물에 영감을 받은 이번 그림들에는 물의 표정이 직접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IV. <폭포> 연작

급류로 흘러간 물은 폭포에도 영향을 주었다. 1997년 학교재 전시에서 폭포 그림이 첫 선을 보인 이래 작가는 폭포 주제의 그림을 집중적으로 그려왔다. 그간 <폭포> 연작은 재빨리 그린 바위나 튀어버린 먹물에 의해 물의 힘과 표정이 표현되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급류> 연작에서처럼 작가가 직접 물을 표현하는 시도를 보여준다. 액션페인팅의 흠뻑림 같은 제스처 효과는 화면에 더욱 자유로우면서도 역동적인 표정을 더해 청량감을 극대화시킨다.

작가 김호득은 자유분방하고 거침없는 감성의 소유자이다. 또한 젊은 시절 고답적인 한국화단의 현실에 맞서 열정적으로 소재와 기법을 실험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그런 거침없고 형식에 구애 받지 않는 감성은 이후 꾸준한 작품 활동을 통해 '군더더기 없는 최소한의 요약으로 본질을 찾는' (유홍준) 자유로운 먹의 운용을 가능케 했다. 전통적인 화화 체계를 관통하면서 새로운 한국화의 소재와 기법을 실험해온 김호득의 오랜 시도는 이제 파격과 감각적 세련을 넘어 내면에 이르는 서정의 깊이까지 확보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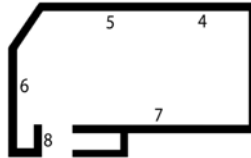
김 호 득
신관
F1,B1,B2

Annex - F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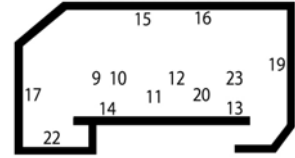
1. 거꾸로 -, 146×254cm, 광목에 수묵, 2007
2. 문득-누워, 1140×250cm, 광목에 수묵, 2007
3. 문득-서다, 80.5×117.5cm, 광목에 수묵, 2007
4. 거꾸로 가, 150×260cm, 광목에 수묵, 2007
5. 돌아선 나, 150×260cm, 광목에 수묵, 2008
6. 문득-흔들림, 82×150cm, 광목에 수묵, 2007
7. 돌, 150×260cm, 광목에 수묵, 2006
8. (문득-사이), 82×116cm, 광목에 수묵, (2006)

BF1



9. 여명, 61×84cm, 광목에 수묵, 2008
10. 석양, 61×82cm, 광목에 수묵, 2008
11. 문득-사이, 62×111cm, 광목에 수묵, 2006
- 12(1). 문득-한낮, 86×60cm, 광목에 수묵, 2008
- (2). 문득-오후, 86×60cm, 광목에 수묵, 2008
- 13(1). 문득, 50×86cm, 광목에 수묵, 2008
- (2). 문득, 50×86cm, 광목에 수묵, 2008
- 14(1). 문득-사이, 48.5×61.1cm, 광목에 수묵, 2008
- (2). 문득-사이, 48.5×61.1cm, 광목에 수묵, 2008

BF2



15. 급류, 146×254cm, 광목에 수묵, 2007
16. 급류, 146×254cm, 광목에 수묵, 2007
17. 급류, 118.5×255.5cm, 광목에 수묵, 2008
19. 폭포, 218×152cm, 광목에 수묵, 2007
20. 폭포, 86×50cm, 광목에 수묵, 2008
22. 폭포, 151.5×85cm, 광목에 수묵, 2008
23. 폭포, 85×60cm, 광목에 수묵, 2008
24. 거꾸로 미음, 84.5×122cm, 광목에 수묵, 2007